

## 다시, 일상 멈추나



15일 오후 광주 북구 코로나 19 선별진료소에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일상 멈춤'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연일 코로나19 폭증세를 이어온 광주·전남에선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낮은 초·중·고교로 감염세가 확산하면서, 의료계를 중심으로 일시적인 방역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도 새 변이인 오미크론 유행 이후 수도권·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신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사적모임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 등을 담은 방역 강화조치를 사실상 확정하고, 시행 시기 등을 검토하고 있다.

15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현재 광주에선 모두 30명이 신규 확진됐다. 광산구 중학교 5명, 북구 어린이집 1명, 골프 모임 1명 등 집단 감염 관련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다. 다른 시도 확진자 관련 5명,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광주 기준 확진자 관련 7명,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유증상자 11명이다.

특히 일선 학교의 감염세가 매섭다. 광산구 고등학교, 남구 초등학교, 북구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 모두 4개 학교에서 전수검사를 하고 있는데, 총 검사인원만 2800여명에 이른다. 학생들은 가족 간 감염, 확진자와 동선 겹침, 증상 발현 등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우려했던 중증병상 부족 사태가 일부 해소됐다는 점이다. 그동안 중증병상 29개를 확보하고 있던 광주시는 이날 전남대학교 병원에 중증병상 16개를 추가해 총 45개로 늘렸

### 초·중·고생 코로나19 폭증세 의료계 "거리두기 강화해야" 정부, 17일 새 방역조치 발표 사적 모임 4명으로 제한할 듯

다. 한 자릿수에 머물던 잔여병상도 이날 현재 21개로 다소 여유있는 상황이다.

접종 완료자는 전체 시민 144만1552명 중 116만4710명으로 80.8%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지만, 12-17세 청소년의 접종률은 47.1%로 절반을 넘지 못하고 있다. 오미크론 방어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3차 추가 접종인 이른바 '부스터샷' 접종률은 15%로, 전국 평균(15.5%)에도 못미치고 있다.

최근 오미크론 확진자까지 발생한 전남에선 이날 오후 2시 현재 26명이 추가 확진돼 전남 누적 확진자는 5301명이 됐다. 지역별로는 순천 7명, 보성 5명, 나주·목포 각 4명, 담양 2명, 광양·화순·영암·장성 각 1명이다.

전남은 특히 15일 새벽 0시 기준, 지난해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주간 일 평균 확진자가 70명을 넘어섰다.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1주일 동안 누적 확진자가 483명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

했다. 입원 격리 환자도 720명에 달해 코로나 사태 이후 최다치를 기록, 의료계 부담을 키우고 있다.

다만 코로나 백신 접종률은 타시도를 압도한다. 전체 도민 184만여명 가운데 154만4273명이 14일까지 접종을 완료해 접종률은 84.0%에 이른다. 그러나 연일 돌파 감염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21% 수준에 그치는 3차 접종률 제고가 과제로 주어졌다.

수도권과 지방을 가릴 것 없이 확진자 폭증세가 이어지자 정부도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축소하고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현 방역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방역 강화 조치는 오는 17일 발표되고, 연말까지 2주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6명인 수도권의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4명으로 줄이고, 시간제한 없이 운영되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밤 12시 또는 밤 10시 등으로 단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의료계 등을 중심으로 오는 오후 6시 이후 2명 모임만 가능한 기존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 등도 나오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수능 생명과학II 20번 정답 취소

### 법원, 선고 앞당겨 학사일정 혼란 최소화

#### 응시자 전원 정답 인정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 생명과학 II 20번 문항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의 출제 오류가 맞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평가원은 해당 문항에 대해 '정답 없음'으로 처리하고 응시자 전원 정답을 인정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7면>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수험생 A군 등 92명이 평가원을 상대로 "수능 시험 정답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문제의 객관적 하자가 있지만 정답을 구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평가원 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거듭 계산을 정확하게 한다면 조건이 잘못된 것을 직시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는 총 20문제를 푸는 수능에서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문제는 수험생들의 수능능력 측정을 위한 기본적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단순 암기력'이 아닌 '추리·분석·탐구 능

력'을 측정하는 수능의 목적을 고려할 때 "출제자가 당초 설정한 풀이방법이 아니어도, 수험생들이 논리성·합리성을 갖춘 풀이방법을 수립해 문제해결을 시도할 경우 정답 도출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평가원이 제시한 '모범 풀이방법' 외의 다른 논리적인 방법으로 문제 풀이를 시도한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준 건 출제자의 잘못이란 판단이다.

재판부는 또 "수험생들에게 정답을 5번으로 선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생명과학 원리를 무시한 채 답을 고르라는 것과 다름없어 부당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정답을 고집한다면 수험생들에게 앞으로 쓸데없이 생각을 많이 하게 하고, 깊이 파고들수록 불리해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재판부는 오는 17일 분안 소송 선고를 할 예정이었지만 학사일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로 선고기일을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광주시, 초·중·고 신입생에 입학준비금 지원

### 초등 10만원, 중·고등 25만원 총 4만2000명 대상

광주지역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내년부터 10만~25만원씩의 입학준비금이 지급된다. 광주시는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광주시와 자치구,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7월부터 지속적으로 협의를 거쳐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내년부터 초·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14일에는 시의회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입학준비금은 초등학생 10만원, 중·고등학생 25만원이다. 준비금 지원 대상은 총 4만2000여명으로, 지원 사업비는 85억 2200만원이다.

초·중·고 전체 신입생에게 입학 준비금을 지원 하는 자치단체는 광주시가 유일하다. 지원 예산은 광주시, 자치구, 시교육청이 각각 25%, 20%, 55%를 부담한다. 신입생 입학준비금으로는 교복, 생활복, 체육복 등 의류를 비롯한 도서, 원격 수업용 스마트 기기 등 신입생이 입학준비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박진표 광주시 여성가족국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입학준비금을 지원해 신입생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신입생 입학준비금 외에도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복지 활성화 등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23개의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하고,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내년 유·초·중·고교 급식단가도 전국 평균수준으로 인상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이홍재의 세상만사 '송가숙 선생님을 그리며' ▶2면
- 광주일보·매일신문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 ▶5면
- 페퍼스, 폐기·분위기로 연패 끊는다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총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 Sulwhasoo

## 설화수 자음생크림

### 6,000배\* 고농축 진세노믹스™의 힘으로 탄력의 시간을 무한하게

탄력이 떨어지고 있다면, 복잡한 피부 속을 바로 잡으세요  
강력한 인삼에너지로 6,000배\* 이상 고농축한 진세노믹스™, 피부 한 층 한 층 채우고, 세우고, 당기고\*\*, 탄력을 끝까지 붙잡아줍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탄탄해진 피부를 경험하세요

NEW

Sulwhasoo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 EX CREME REGENERANTE

\*인간인 인삼 사포닌 CA 함량 비교 \*\*피부탄력도 ±12.3%, 탄력 +10.2%, 주름 -25.9% 인체피부 실험 결과(49 후 사용 결과) (대상: 30~60세, 31명) 시험기간: 라면제조(피부)연구소(2021년 11월 03일~2021년 05월 05일)